



소먹이를

사슴에게 주지 마세요!

사슴전용배합사료를 생산하면서 전용 팜플렛 하나 만들지 않고 생산, 판매 해 '타 축종 사료를 사슴에게 먹여도 된다' 라는 양쪽 업계 관행을 바꿔버린 (주)상아아그리텍, 타 축종 소, 돼지, 닭 사료들은 수십 종류의 사료와 제조 회사들도 다양하다. 반면 사슴은 소와 비슷한 구조를 가졌다 하여 소 사료를 먹이는 게 현실이 되었다.

(주)상아아그리텍은 사슴 한 축종만의 사료를 생산, 판매 하고 있어 전문 사료 시장의 선봉에 섰다.

사슴만을 위한 전문사료 출시로 전국 농장 석권!

"아직도 소 사료를 먹이십니까?"라는 카피 광고로 잘 알려진 상아아그리텍 육화균(47)사장은 사슴의 먹이에 관한 프리미엄을 고집한다.

이 고집은 현 소와 사슴이 같은 초식동물로 먹이를 동일시하는 경향에서 비롯됐다.

육 사장이 사슴에 눈을 돌린 계기는 타조농장의 컨설팅을 하면서부터이다. 타조와 사슴이 같이 사육하는 농장이 많다보니, 자연스레 사슴사육에도 눈이 가게 된 것이다.

육 사장은 "현 사슴사육은 많이 왜곡 돼 있다. 또한 사슴은 '아무나 길러도 된다' 라는 잘못된 사육 상식으로 인한 결과가 바로 눈에 나타나지 않는다" 면서 "사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먹이다. 무엇을 먹이느냐에 따라 성육이 됐을 때 많은 변화를 보인다"라고 먹이의 중요성을 피력한다.

한때 양쪽 업계는 아무거나 잘 먹고 잘 소화할 수 있으

므로 '전용 배합사료는 필요 없다'는 전용배합사료 무용론까지 대두됐다. 육 사장은 2년 동안 사슴의 영양에 대해 연구 한 끝에 풀, 곡물, 배합사료의 구성비가 사슴의 성장과 건강에 맞도록 배합비를 완성하게 됐다.

"사슴은 소화 이용률, 기호성, 영양소 요구량, 비타민과 미네랄 요구량이 소와 다르기 때문에 전용사료가 꼭 필요한 특수 가축 중 하나이다."

(주)상아아그리텍은 국내의 조사료 여건과 사육 환경을 고려해 배합 비를 구성했기에 사슴의 경제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으며 기호성이 높아 사슴의 종류를 불문한다.

육성 사슴 배합사료의 급여 시기는 암사슴의 경우 육성기부터 분만 전, 이유 후부터 분만 전까지, 수사슴의 경우 육성기 첫 뿔 성장 전, 절각 후 낙각 1개월 전까지이다. 큰사슴 배합사료는 육성기 사슴의 근육 및 골격 형성과 소화기관 발달에 도움을 준다. 포유기 유량을 많게 해 건강한 자육을 만들어 주며, 비타민 미네랄 등이 균형

있고 충분히 첨가돼 별도의 공급이 필요 없다. 국내의 조사료 여건과 사육 환경을 고려한 후 배합비가 구성 되어 사슴의 경제 수명을 연장 시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충분한 영양의 공급으로 녹용의 생산량 증가와 상대 부위의 발달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며 기호성이 높아 모든 사슴이 좋아한다.

큰사슴 배합사료는 암사슴의 경우 육성기 (12개 월령)와 포유기, 수사슴의 경우 육성 기부터 절각 기까지이다. 종륙의 발정기, 회복기에 먹이면 된다.

상아사슴전용배합사료는 서울사료(주)에서 생산되고 있다. 모든 원료는 서울사료 4개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해 전국의 농장에서 즉시 구매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냈으며, 현금 구매와 판매는 마진율을 줄여 비용으로 인한 부담을 줄였다.

철저한 농가 관리로 사슴전문사료의 확고한 이미지 구축
(주)상아아그리텍 육 사장은 자사 제품을 이용하는 전국 농가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서 소식지를 배포한다. 이것이 상아사슴사료를 애용하는 농가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다.

육 사장은 "국내 사슴 농가 중 극히 일부는 기업 형태도 있고 전업 형태도 있지만 사슴을 사육하는 많은 농가들이 부업형태이다 보니 기초지식조차 왜곡 돼 있는 실정이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정보의 단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라고 지적한다.

이런 측면에서 사슴사육소식지는 지금까지 잘못되어 왔던 관행과 사양지식을 바로잡아주는 데 큰 몫을 하고 있으며, 현재 약 1000여 농가에 무상으로 배포하고 있다. 또 하나의 특권은 내부 기생충제가 무료로 제공된다는 점이다. 육 사장은 내부 기생충은 농장주가 아주 조금만 신경

쓰면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면 무료 제공 동기를 본다. "국내 사슴사육형태는 대부분 집약사육형태이므로 사슴농장 대부분이 내부 기생충에 감염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기생충은 감염되어도 사슴이 쉽게 폐사되거나 눈에 보일 정도로 잘 못되진 않는다. 그러나 소모성 질병의 일종으로 보이지 않는 피해를 주게 된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 속도감을 즐기며 사는 사람은 육사장의 경영마인드를 이해하지 못한다. 이는 육사장이 경영을 할 때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를 내다보며 사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육사장의 끈임 없는 연구와 자사를 찾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보답하는 그의 경영 철학에서 사슴의 미래를 본다.

